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PSG 챔피언스리그 첫 우승... 이강인 트로피



“시즌 내내 팀은 같은 목표를 향해 단결했습니다. 매우 행복합니다.” 이강인 (@kanginleofficial)이 한국 선수로는 17년 만에 유럽축구연맹(UEFA·@uefa_official) 챔피언스리그(@championsleague) 우승트로피 ‘빅이

어’를 들어 올렸다. 파리생제르맹(@psg)은 1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UCL 결승전에서 인터밀란(이탈리아)을 5대 0으로 완파했다. 이강인은 엔트리에 포함돼 벤치에 이름을 올렸지만, 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다. 이강인은 올시즌 UCL 11경기를 포함해 공식전 45경기에 출전,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4관왕 여정에 힘을 보탰다.

악! 김도영, 또 부상... 햄스트링 2단계 손상



KIA 타이거즈 ‘간판타자’ 김도영이 지난달 27일 프로 야구 키움과의 홈경기서 도루 후 고통을 호소, 28일 햄스트링 손상 소견을 받았다. 지난 3월 개막 첫 경기서 왼쪽 허벅지 부상을 입은 후 두 번째다. 김도영은 복귀한 달 만에 또다시

입은 부상으로 SNS 계정을 아예 달아버렸다. 첫 번째 부상은 햄스트링 손상 중 경미한 수준이라는 1단계 진단을 받았음에도 복귀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심각한 2단계 소견을 받아 복귀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KIA 팬들의 답답함은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예측돼 벌써부터 팬들은 술렁이고 있다.

ACC 하늘마당에서 휴식 즐기세요

ACC하늘마당
5월31일 개방

으로 돌아왔다. 특히 개방 당일 오후 3시에는 ‘2025 학생 야외 버스킹’도 진행돼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는 날, 그동안 이용하지 못했던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ACC 하늘마당’에서 잔잔한 휴식을 느껴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이 곳에는 담소를 나눌수 있는 벤치도 계단 아래 설치 돼 있어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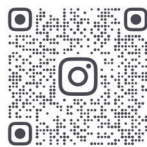
진일보 추천 사회과학 도서 3권

진일보 책갈피
복잡한 세상을
해부하는 사회과학 도서

책. △코스모스(칼 세이건·사이언스북스) - 140억 년 우주의 역사를 탐험하며 우리 존재의 의미를 묻는 광활한 우주 속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서, 세상을 바꾸는 과학 고전. △총균소-인간 사회의 운명을 바꾼 힘(재레드·디아몬드·김영사) - 인류 문명의 발전 격차를 ‘총, 균, 쇠’ 등 환경 요인으로 파헤치며 지리와 환경의 차이가 역사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과학고전.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아침을 열며 정연권 색향미야생화 연구소장

구례군민들 ‘서시교 지키기’
1만명 서명 운동 돌입

서시전은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에서 구례읍까지 흐르는 아름다운 하천이다. 신비한 전설을 가진 생명의 젖줄로 사랑받아 왔다. 구례군 대동맥이요 군민들의 생활 연결선인 서시교가 철거 논란으로 갈등이다.

군민들이 비장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4월11일 권향엽 국회의원, 김순호 군수, 장길선 의장, 김창승 서시교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등이 구례군의회 광장에서 성명서 발표와 함께 서시교 지키기 1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시교는 구례군민의 다리다. 철거하거나 3m 이상 숭상할 이유가 없다. 서시전에 소급 적용한 하천 기본계획을 재조정하라” 주장하며 정부를 규탄하였다. 서시교대책위원회 중심으로 1만명 서명을 받아 국정감사와 국가권익위원회 중재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천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 서시교를 3m 이상 숭상이나 우회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익산국토관리청·영산강유역환경청 입장이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 백번 천번 맞는 말이다. 현 방안이 맞다 확신한다면 군민들을 설득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 반대가 심해도 먼 미래를 보고 실행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책무다. 국가에서는 과도하도록 안전을 강조하고 군민들은 생활의 편리성을 원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어렵다. 애먼 구례군 관계자들만 군민과 정부 사이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다.

군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에 나섰다. 토목공학 교수와 전문가를 찾아 자문결과 현 위치에서 1m 미만 숭상이나 준치 등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103일 동안 아침마다 서시교 다리에 나와 준치를 호소하던 할머니들의 눈물이 말라버렸다. 공청회도 두 번이나 가졌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견해차가 커 답답하고 안타깝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다. 하천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하천법이 완전무결한가 살펴봐야 한다. 군민 생활에 부합되지 않는 법을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몇 번을 반문해 본다. 법의 위력 앞에 굴복해야 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 수해의 원인을 강우량에만 보고 독과 다리를 높인 것은 도둑이 오지 말라고 담판 높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섬진강댐과 주암댐 수위 조절을 AI 시스템 구축으로 운영하고 준설작업 등 다른 대책은 정녕 없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구례군민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인데 본인들이 편하고 책임 지지 않는 일만 하려고 한다. 군민의 말을 외면하고 있다. 아니다.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법대로 하겠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정부 고위관료들과 공무원들은 물러나면 그만이나 군민들은 평생 이곳에서 살아간다. 자손들도 마찬가지.

구례군민들은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 1963년 1만 가구에서 10원씩 10만원을 모금했다. 현재 가치로 1000만원 정도다. 1967년에도 20원씩 20만원을 모금해 투쟁경비로 사용해 1967년 12월 29일 제1호로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정받았다. 이러한 정신은 지금 서시교 지키기 1만명 서명운동에서 발휘되고 있다.

서시교대책위원회는 구례 5일장, 행사장과 읍면 이장 회의를 찾아 호소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낮이고 밤이고 달려갔다. 공공장소, 약국 등 27개소에 서명지를 비치했다. 온라인 폼도 개설하여 항우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다. 이제 9부 능선을 넘어 조금만 더하면 목표달성이 될 것 같다.

서시교는 하루에 6000대 차량이 이동하는 교통 요충지다. 투쟁이나 거래 대상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이어주는 연결선을 지키고 자하는 것이다. 대화로 같이 살아가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우문현답’의 지혜를 빌려보자. 서시전과 섬진강 현장에 답이 있다. 명쾌한 해답이 있을 것이다. 서시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간곡히 바란다. 전문가들의 세밀하고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하천법을 개정해 주기를 고대한다. 진정한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 협력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한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